

## 외모지상주의의 문학적 극복과 치료적 대안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인문학적 해결방안-\*1)

최 혜 진\*\*2)

### <차례>

1. 머리말
2. 외모지상주의와 한국사회의 병리 현상
3. 외모 관련 작품서사와 문제 인식
4. 문학치료를 위한 자기서사 진단
5. 개선을 위한 작품서사
6. 맺음말

### 1. 머리말

본 연구는 외모지상주의가 조장하는 여러 사회적 병리 현상들을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학치료적 대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사회는 이미지 소비를 통해 몸(외모)이 욕망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상

---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국책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6A7050965).

이 논문은 제151차 문학치료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2016.6.4.)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김정애 선생님과 여러 고견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목원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품화가 이루어지면서 외모지상주의가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한다. 사회구성원들은 외모를 가치나 평가의 척도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차별을 발생시키며 이는 외모불안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외모불안감은 자신의 외모가 타인의 시선과 부정적인 평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며, 외모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평탄치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 외모불안감은 또 다른 심리적 행동적 장애(거식증이나 폭식증, 신체이형장애)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정신건강의 지표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화불안감은 나이듦에 수반되는 외모의 변화(흰 머리카나 주름 등)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으로 넓은 의미에서 외모불안감의 한 유형이다. 고령화시대에 들어 노화불안감은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점점 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sup>1)</sup>

현대사회는 이미지 소비시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욕망은 상품화는 물론 식욕이나 운동, 뷰티 산업 등과 관련한 시장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다. 외모를 위해서 사람들은 성형을 마다하지 않으며, 몸의 통제와 억압은 물론 이러한 결과로 인해 얻어진 여러 차별들을 절대화하는 외모지상주의(lookism)의 이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일마저 어떤 외모가 되는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고, 외모를 위해서라면 ‘음식을 굶는’ 비장한 지조마저 당연<sup>2)</sup>해지는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외모의 추구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에 기반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추구할 만한 무엇이 되어서 맹목성을 띠게 되고 강박적인 행동을 유발하고<sup>3)</sup> 있다.

현대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보듯이 몸의 차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타자에 대한 평가절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결혼과 취

- 
- 1) 임인숙, 「외모차별 사회의 외모불안감과 노화불안감」, 『한국사회학』 49-4, 한국사회학회, 2015, 200면.
  - 2) 홍성민, 「질주하는 몸의 욕망과 자아의 재귀」, 『철학연구』 44,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1, 269면.
  - 3) 고석주 정진경, 「외모와 억압: 문화적 관념의 내면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학』 8, 한국여성학회, 1992, 58면.

업 시장에서 외모는 매우 영향력있는 조건이 되고 있으며, 근대 이후 점차 강화, 발전되고 있는 뷰티산업에서 외모는 절대적 상품가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내적 구조 안에 외모가 또 하나의 권력이자 성취의 도구가 되는 현실에서 외모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모지상주의가 가져 오는 여러 폐해들이 이미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직시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모지상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문학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 자기서사의 진단과 개선을 위한 문학치료의 방법이 유효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문학치료적 효과를 염두에 둔다.

- 첫째, 외모로 인한 편견을 가지지 않을 것
- 둘째,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심미안을 회복할 것
- 셋째, 외모와 신체에 대한 자이존중감을 높일 것
- 넷째, 사회적 외모 강박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질 것

위와 같은 효과를 염두에 두면서 궁극적으로는 문학을 통해 얻게 되는 감성적 효과나 내면의 본질과 마주하게 되는 성찰적 결말도 기대해 보고자 한다. 특히 두 번째인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미감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미에 대한 획일적인 안목을 떨치고 비대칭적 심미안을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외모지상주의로 파생된 한국적 병리현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고찰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학치료학에서 그동안 이루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자기서사 진단을 위한 서사자료의 탐색과 진단문항을 추출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모지상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한 개선서사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외모지상주의와 한국사회의 병리 현상

현대사회의 여성들은 젊음, 건강,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해 강박관념을 지니고 있다.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화장, 패션, 성형, 다이어트, 체형조정, 그리고 피부관리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외모를 가꾼다. 여성의 ‘외모가꾸기’ 행위는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스스로 가꾸고 유지해 나가는 능동적인 의미로 변화된다. 그러나 아무리 여성의 외모가꾸기가 능동적인 행위라고 해서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후기시대로 접어들면서 ‘외모가꾸기’의 의미가 개인의 차별화된 육체표현의 욕망과 관련이 깊을수록, 다른 외적인 요인들, 즉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관리의 매커니즘이 더 많이 개입<sup>4)</sup> 되기 때문이다.

임인숙은 ‘외모차별주의’는 단순히 아름답거나 젊은 육체적 외양에 대한 선호 자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것은 다양한 외모가 존재하는 현실과 모순되게, 획일적인 외모 기준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외모차별적 사회는 외모에 근거해 개인의 인성이나 자질, 능력까지 판단함으로써 기회균등의 원칙과 개인의 존엄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외모차별은 심각한 사회적 불의이자 사회문제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4년도와 2011년도에 시행한 전국조사에서 ‘외모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에서 85.6%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들이 외모차별의 심각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 유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외모차별을 든 비율이 두 기간 동안 5.0%에서 11.7%로 증가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사회적 차별 경험이 스트레스나 우울, 강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sup>5)</sup>

4) 권수현·이정화·이준원, 「외모가꾸기」에 대한 여성학적 분석, 『연구논총』 30,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96, 269~270면.

5) 임인숙, 「외모차별 사회의 외모불안감과 노화불안감」, 『한국사회학』 49-4, 한국사회학회, 2015, 202면.

외모의 문제로 자신감이 저하되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남들 앞에서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며, 특히 자기를 평가 절하하게 된다. 이는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4,50대에 재취업한 주부들이 열심히 살을 빼고 성형 수술까지 하여 외모를 새롭게 가꾼 후 일에 대한 자신감이 늘었다는 보고를 보면 외모에 대한 자기 인식과 전반적인 자신감, 그리고 일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다.<sup>6)</sup>

맥킨리는 이러한 증상을 ‘객체화 신체의식’(사회적 담론에 의해 몸이 구성되는 과정을 보다 실증적으로 조명하고 외모관리에 치중하는 현대인의 심리적 기제를 해명하기 위한 용어)이라 명명하고 세 가지 요소로 세분화하였다. 첫째, 신체 감시성, 둘째, 문화적 신체 기준의 내면화와 이에 따른 수치심, 셋째, 외모에 대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그것이다. 그 중 신체 감시성은 타인의 시선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사회문화적 기준의 시선으로 스스로 감시하는 것이다. 신체에 대한 수치심은 이상화된 신체 이미지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즉 사회문화적 조작에 의한 이상적 신체 기준을 오히려 자신 스스로 형성한 것이라고 믿게 되면서, 자기 몸에 대한 수치심과 자기 거부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체 통제신념은 외모에 대한 문화적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때 여성이 자기 외모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맥켄리는 신체 통제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신체 수치심은 낮고 신체 존중감은 높으며 외모를 꾸미거나 변형하려는 시도가 더 많아진다고 보고한다.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객체화 신체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몸을 스스로 감시하고 규율하며 훈육하는데 길들여져 왔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회 담론이 형성한, 혹은 권력과 규율이 주입하는 이상적 신체 이미지에 따라 스스로를 감시하고 수치감을 느끼며, 급기야 그 이미지대로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몸을 만들어갈 때

6) 고석주 정진경, 「외모와 억압:문화적 관념의 내면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학』 8, 한국여성학회, 1992, 49~50면.

혹은 만듦어간다고 믿을 때, 우리는 신체 존중감과 자기 존중감을 얻고 주관적 안녕감을 획득하게 된다.<sup>7)</sup> 요컨대 한국인은 사회적 기준과 타자의 시선에 의해 자존감을 획득하기도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외모 불안감은 외모지상주의로 연결되어 소비, 권력, 성취, 애정 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태는 여러 가지 차별의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되어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불안, 강박, 편견 등 다양한 정신적 병리 현상들 속에서 나타난 과도한 뷰티산업의 성장과 비정상적 외모가꾸기 열풍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sup>8)</sup>

이러한 병리 현상은 신경증으로도 해석된다. 카렌 호나이의 신경증적 분석에 의하면 외모와 관련된 신경증은 ‘애정과 인정에 대한 신경증적 욕구’이다. 이것은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를 말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관심의 중심에 놓고 그들의 바람과 의견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적대감이나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적대적 감정을 강박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특징이다.<sup>9)</sup> 외모의 문제는 사회적 시선에 의해 내면화된 자신에 대한 자기혐오를 필연적으로 일으키게 된다. 자기혐오는 자기비하(self-contempt)로 드러난다. ‘자기 비하’라는 표현은 자신감의 토대를 잠식하는 다양한 방식, 즉 자기 축소, 자기 폄하, 자기 회의, 자기 불신, 자기 조소에 두루 사용하는 용어이다.<sup>10)</sup> 즉 현재 전반적인 외모지상주의 문제는 외모에 대한 자기비하 혹은 자기혐오로부터 오는 병리현상이라 진단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자기비하의 원인은 한 가지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외모의 문제가 자기혐오를 일으키게 되는 데는 다양한 자

7) 홍성민, 「질주하는 몸의 욕망과 자아의 재귀」, 『철학연구』 44,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1, 277면.

8) 이런 전체 위에서 볼 때 정신건강의 기준은 개개인이 특정한 사회질서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래서 인간존재의 문제에 만족할 만한 해답을 주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에리히 프롬, 김병익 역, 『건전한 사회』, 범우사, 2015, 22면.

9) 카렌 호나이, 정명진 역, 『나는 내가 분석한다』, 부글, 2015, 65면.

10) 카렌 호나이, 서상복 역, 『내가 나를 치유한다』, 연암서가, 2015, 186면.

기서사의 상처가 내재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적 증상이 외모 지상주의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적, 병리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과 해결은 서로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호나이가 말하는 자기혐오 신경 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첫째,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불이익이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강박이다. 둘째, 인간 관계에서 쉽게 상처받는다. 자기 비하는 비판과 거절에 대한 신경 과민 반응을 만든다. 셋째, 자기 비하에 시달리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할 수 있다. 외모로 인한 굴욕감, 냉대, 욕설, 무시 등에 대한 학대에 시달릴 수 있다. 넷째, 학대와는 반대로 자기혐오 환자일수록 주목, 존중, 감사, 칭찬을 받으려는 강박증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것은 타인에게 주목을 받으므로써 승리감을 얻게 되고 이렇게 타인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성형 등 자기 신체 훼손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비하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절박감에서 생기는 것이다.<sup>11)</sup> 이렇게 외모를 깎아내리는 자기 비하 태도는 격한 자기 질책을 누그러뜨려 지나치게 노력하거나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첫째 경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과 돈, 생각을 머리 모양과 얼굴 피부, 옷차림 등에 써버린다. 자기 편하가 코나 가슴이나 과체중 같은 특별한 측면에 집중되면, 성형 수술이나 강제 감량 같은 과격하고 극단적인 ‘치료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둘째 경우에는 자부심이 피부, 자세, 옷차림을 온당하게 돌보는 일조차 방해한다. 곧 자신이 못생기거나 혐오스럽다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 외모를 꾸미려는 시도를 무시하며, 자신의 일과 상관없는 것이라 여기게 된다.<sup>12)</sup>

이러한 외모와 관계된 여러 병리 현상들은 자아존중감이 낮거나, 심리적 기체에 의한 개인적 원인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회담론적 측면에서 산업화, 상품화 되어가는 외모 혹은 신체의 문제, 즉 사회적 원인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외모지상주의는 근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도한 외모의 획일화, 상품화, 차별화의 문제라는 점에서 전시대의 미적 기준과 심미

11) 카렌 호나이, 서상복 역, 『내가 나를 치유한다』, 연암서가, 2015, 188~192면.

12) 카렌 호나이, 서상복 역, 『내가 나를 치유한다』, 연암서가, 2015, 194면.

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전 서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심미성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자본주의 논리가 고착화되기 이전, 외모의 강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어져 있던 시대의 이야기를 자기서사로 가져옴으로써 편견과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적 심미성을 회복하는 일이 긴요하다.

### 3. 외모 관련 작품서사와 문제 인식

외모에 대한 문제는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와 연관이 있다. 인간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본성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모의 문제가 신경증과 강박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존엄성을 해치고 신체를 폄훼하는 단계에까지 이룬다면 그것은 병적 증상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병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서사를 중심으로 내적 치유를 유도하는 문학치료학의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때 자기서사의 진단과 개선은 매우 필수적인 문학치료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외모에 관한 자기서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을 분석해서 얻는 작품서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전시대 고전서사 중 설화를 주로 활용할 수 있다. 고전설화의 작품서사를 활용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자기서사도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sup>13)</sup>

외모와 관련된 설화 중 외모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외모의 강박에 사로잡힌 것으로 판단되는 다음 서사를 통해 외모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분석해보자.

13) 정운채, 「자기서사 진단을 위한 이론 탐색」, 『문학치료학의 실천』, 2015, 142면.



## &lt;머리에 쓰면 미인으로 둔갑하는 해골&gt;

어떤 남자가 일을 하려고 개를 데리고 산에 갔다가 우연히 여우가 해골을 머리에 쓰더니 미인으로 둔갑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남자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서 개에게 여우를 쫓으라고 시켰다. 개가 갑자기 짖어대자 여우는 깜짝 놀라서 해골을 버려두고 도망쳤다. 남자가 해골을 가져다가 소에 씌웠는데 소가 예쁜 여자로 변하더니 밭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남편에게 줄 새참을 들고 오던 아내가 밭에서 일하는 여자를 보고 오해를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남편은 점심때가 되어도 아내가 오지 않자 배가 고파서 집으로 갔다. 남편이 아내에게 밥을 달라고 하자 아내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할 수 없이 개에게 해골을 씌우자 여자로 변한 개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기 시작했다. 방에서 누워있던 아내는 부엌에서 여자가 음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지깽이를 들고 여자를 쫓아다녔다. 남편이 '위리'하며 여자로 변한 개를 불러서 해골을 벗긴 후 외양간에 있는 소에게 씌웠다. 그러자 아내는 여자로 변한 소를 때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싸움을 말리고 아내에게 머리에 쓰면 미인으로 둔갑하는 해골을 설명했다. 그제야 아내는 오해를 풀고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었다. 남편이 밥을 다 먹자 아내는 어느 주막에서 예쁜 여자를 구해보면 큰돈을 준다고 했으며, 이번 기회에 해골을 이용해서 큰돈을 벌어 보자고 하였다. 주막에 간 남편은 개에게 해골을 씌워 여자로 변하게 한 뒤, 주막 주인에게 예쁜 여자를 데려 왔다고 하였다. 주막 주인은 남편이 데려 온 여자를 보고는 흡족해 하며 큰돈을 주고 여자를 맞이하였다. 주막 주인은 여자를 한번 건드려보려고 접근을 했는데 여자가 개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원래 주인의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다. 다음날 주막 주인이 남자에게 와서 여자에게 손도 안댔는데 도망을 쳤다고 하자 남자는 도망을 못 가게 꼭 붙들지 못한 사람이 죄라며 시치미를 댔다. 그 후 부부는 서울로 가서 개에게 해골을 씌워 여자로 변하게 한 뒤에 여자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14)

위 내용은 미인으로 둔갑하는 해골을 가진 남자가 해골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내용은 여성의 미모가 선행의 대상이며, 상품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모를 활용하면 돈이 된다는 세태에 대한 고발의 성격도 있는 동시에 그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외모를 활용하려는 기회주의적

14) 정운채 외, 『문학치료서사사전』 3, 문학과치료, 2009, 2502~2503면.

인 부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모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여성이거나 사람이 아니라, 개나 소 등 동물이며, 이러한 해골을 쓴 동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현혹되는 주막주인의 모습에서 미모가 상품가치로 교환됨을 보여주고 있다.

<첫날밤에 아기 낳고 신랑 붙잡은 신부>

한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첫날밤에 병풍 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났다. 신랑은 붕과 학이 그려진 병풍을 보며 신부에게 붕학이 울고 있으니 젖이나 주라며 자기는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신부는 신랑을 붙잡으면서 “울명지주 한삼섬에 반만들고 날만보소.”라고 노래를 부르며 한삼 저고리만 입고서 신랑을 유혹했다. 신랑이 색시를 보니 너무 예뻐서, “답아 답아 울지마라. 날아 날아 새지마라.”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신부가 “우는 답이 아니 울면 새는 날이 아니 썰까?”라고 했다. 신랑은 예쁜 신부의 얼굴을 보고 차마 돌아가지 못하고 신부와 아이를 데리고 살았다. 아이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sup>15)</sup>

위 내용은 결점이 있는 여성이라도 미모로 유혹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사이다. 첫날밤 신랑은 신부에게 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신부는 신랑에게 과거를 숨기고 결혼한 죄가 있으니 신랑이 파혼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할 처지다. 그러나 신부는 자신의 미모로 돌아가려는 신랑을 유혹했고, 결국 신랑은 신부를 받아들여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설화는 단순히 미모로 결점을 극복했다는 데에 머물지는 않는다. 자신의 결점을 미모를 통해 보상하기는 했으나, 이에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신랑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신랑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설화는 신부가 자신의 미모로 신랑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점에서 외모를 이용하여 목적을 성취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신부의 적극적 노력과 성품이 함께 작용했다는 것을 행간을 통해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신부가 데려온 아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결말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신부의 아기를 함께 잘 기른 신랑의

15) 정운채 외, 『문학치료서사사전』 3, 문학과치료, 2009, 3189면.

너그러움은 미모에 유혹된 남자로서가 아니라 용서를 통해 부부화락을 이루는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다.

#### <구렁덩딩 신선비>

한 늙은 부부가 정성을 드려 뒤늦게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낳아 보니 구렁이였다. 뒷집의 세 딸이 와서 구렁이를 들여다봤는데, 첫째와 둘째는 구렁이라며 징그럽다고 도망을 갔지만, 셋째는 구렁덩딩 신선비라며 좋아하였다. 구렁이가 부모에게 그 셋째 딸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고집을 하였다. 부모가 할 수 없이 셋째 딸에게 혼인을 해 달라고 청하였더니, 셋째 딸은 흔쾌히 허락을 하였다. 셋째 딸과 혼인을 한 구렁이는 셋째 딸에게 물 한 동이와 장 한 동이를 준비하라고 한 후에 그 속에 들어가 말끔한 신선비로 변하여 나왔다. 신선비는 아내에게 자신의 허물을 주며 잘 간수하라고 하고 과거를 보러 떠났다. 좋은 신랑을 얻은 동생에게 심술이 난 두 언니는 동생에게 죽을 썬 가서는 뜨겁다고 호들갑을 떨며 방문을 열게 한 뒤 허물을 빼앗아 태워 버렸다. 남편을 기다리던 셋째 딸은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중 행색을 하고 찾아 나섰다. 셋째 딸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새에게 신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신선비가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다. 그 사람은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 주면 알려 주겠다고 하였다. 셋째 딸이 그렇게 해 주자 산을 넘어가 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 사람이 알려 준 대로 가던 셋째 딸은 띠 뿌리를 캐 먹고 있는 돼지를 보고 신선비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돼지는 띠 뿌리를 다 캐서 아랫물에 씻고 윗물에 행귀 주면 알려 주겠다고 하였다. 셋째 딸이 그렇게 해 주자 돼지가 또 산을 넘어가 보라고 가르쳐 주었다. 셋째 딸이 다시 산을 넘어가 보니 까치가 구더기를 주워 먹고 있었다. 셋째 딸이 까치에게 구렁덩딩 신선비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까치는 구더기를 다 가려내어 씻어 주면 알려 주겠다고 하였다. 셋째 딸이 그렇게 해 주자 까치가 또 산을 넘어가라고 가르쳐 주었다. 셋째 딸이 까치가 가르쳐 준 산을 넘자 큰 저택이 있었는데, 그 집이 신선비가 새로 장가를 가서 살고 있는 집이었다. 셋째 딸은 그 집으로 들어가 시주를 청하고 시간이 늦었으니 처마 밑에서라도 자게 해 달라고 하여 허락을 받았다. 그날 밤 마침 셋째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밝은 달을 보러 나왔던 신선비가 셋째 딸과 만나게 되었다. 신선비는 셋째 딸을 벽장 안에 숨겨 놓고 밥도 나눠 먹고 세수도 함께 하였지만 유난히 검은 세숫물에 깨끗한 밥그릇을 수상하게 여긴 종이 소문을 내었다. 이를 알게 된 신선비는 식구들을 모아 놓고 목은 장과 새 장 중에

무엇이 좋은지를 물었다. 식구들은 묵은 장이 더 맛있다고 대답하였다. 대답을 들은 신선비는 그제야 자신의 예전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새 장인과 장모는 셋째 딸이 물 한 통이를 잊지르지 않고 십 리를 걸어오면 인정하겠다고 하였다. 셋째 딸은 그렇게 하여 인정을 받고 구렁덩덩 신선비와 함께 화목하게 잘 살았다.<sup>16)</sup>

위 내용은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된다’<sup>17)</sup>고 생각하는 서사로 분류되어 있다. 구렁이 신랑의 입장에서 보면 잘생긴 남자로 변신하자 언니들의 시샘을 받은 셋째딸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시험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렁이 신랑은 셋째딸이 금기를 어긴 일에 대해 여러 고난과 시험을 거치고서야 진정한 아내로 받아들이게 된다. 곧 신선비는 흉악했던 과거의 모습을 잊지말고 진심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셋째딸은 처음에는 구렁이 모습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여 신랑을 맞이하였으나, 변신을 하고 허물을 잘 간수하라는 금기를 지키지 못했다. 곧 외모의 변신에 따라 애초에 있었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물론 그것은 언니들의 계략에 의해서긴 하지만 신랑의 허물을 지키지 못한 셋째딸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셋째딸은 진심을 가지고 신랑을 찾는 여정을 하면서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 신랑의 인정을 받게 된다. 구렁이와 잘생긴 신랑은 외모상으로 보면 매우 대조적이다. 그러나 셋째딸은 그러한 외모를 넘어서 진실한 사랑을 찾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헌신적으로 신랑을 찾아 조우하였다는 점에서 외모의 편견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미인계로 재산과 벼슬 얻은 남자>

어떤 남자가 벼슬을 사기 위해 돈을 마련하여 서울의 임금을 찾아갔다. 임금은 돈을 가지고 온 이 남자를 머물게는 해주었지만 돈을 쓰게만 하고 벼슬은 주지

16) 정운채 외, 『문학치료서사사전』 1, 문학과치료, 2009, 283~284면.

17) 정운채, 「연극성 성격장애의 심층적 원인으로서의 연극성서사」,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과치료, 2015, 233면.

않았다. 결국 돈이 다 떨어진 남자는 돈을 더 마련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 주막에서 목게 되었다. 그런데 주막에 미모의 여주인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었다. 남자는 여주인과 짜고 부부 행세를 하며 다시 임금에게 찾아갔다. 임금은 여자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거처할 방을 내주었다. 남자는 임금에게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돈 좀 빌린 후 한동안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고 길을 떠났다. 임금은 남자가 떠나자마자 여자의 방에 찾아가 여자를 데리고 희롱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자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당황하는 척하며 임금을 방에 있는 퀘짜속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남자는 길을 가다가 한 점쟁이를 만나 점을 보았는데 점쟁이가 방 안에 있는 퀘짜속을 버려야 일이 잘 된다고 했다면서 퀘짜속을 지고 강으로 갔다. 남자는 얼음을 깨고 퀘짜속을 강물에 몇 번 넣었다 뻘 후 졸도한 임금을 꺼내 놓으니 임금의 자식들이 모여들었다. 남자는 평소에 임금이 나를 사랑해서 목천 군수를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함께 얼음구경을 나왔다가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였다. 임금의 자식들은 그 말을 아버지의 유언으로 여기고 이 남자를 목천 군수로 보냈다.<sup>18)</sup>

위 내용은 미인계를 이용하여 임금에게 재물과 벼슬을 얻어내는 것으로 외모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는 서사이다. 여기서 임금은 돈으로 벼슬을 주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으며, 남성 또한 호색한 임금을 이용하여 미인계로 임금의 재물을 가로챘다. 임금과 남자는 신분과 권력, 재물 등을 중심으로 서로의 이득을 노리는 사이이다. 임금은 남자의 돈을 가로채고, 남자가 다시 미인을 데리고 오자 음흉한 마음으로 여자를 희롱하려 하였다. 그리고 여자는 그러한 임금을 퀘짜속 속에 넣고 물에 빠져 죽게 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 여기서 임금은 권위나 도덕성은 없고 오직 미인과 돈을 밝히는 파렴치한으로 드러나며 임금의 자식들은 임금이 죽었는데도 남자의 말을 믿고 더 이상 문제를 삼지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임금이라는 최상의 권력자도 미인에게 속아 넘어가서 당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미인계를 통해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취한 이득이 비정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곧 외모는 서민들이 권력

18) 정운채 외, 『문학치료서사사전』 1, 문학과치료, 2009, 1081~1082면.

자를 회롱하거나 파멸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작품서사는 미모가 상품가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외모가 결점을 덮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돈과 외모에 집착하는 것은 파멸을 불러온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등을 시사하고 있다. 즉 외모와 연관된 서사에는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인식이 드러나 있으며, 우리는 외모지상주의와 관련된 자기 문제인식을 이러한 서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문제인식을 끌어낼 수 있는 작품서사를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해석과 다양한 활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4. 문학치료를 위한 자기서사 진단

외모의 문제에 대하여 설화작품에 드러난 여러 사례가 다양한 해석가능성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선별된 서사를 바탕으로 자기 서사를 탐색할 진단문항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치료란 문학작품을 통하여 환자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치료가 가능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 서사적으로 구조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들 삶의 서사에 문학작품의 서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문학치료는 문학작품의 작품서사를 통하여 자기서사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일이다.<sup>19)</sup> 자기서사의 치료단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바 있다.

- ① 자기서사 보충단계 - 작품서사를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는 단계
- ② 자기서사 강화단계 - 작품서사를 통하여 드러나 있진 않지만 잠재 내면을 자극해 일깨우는 단계

19) 정운채,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문학과치료, 2006.

- ③ 자기서사 통합단계 - 작품서사를 통하여 현실의 세계에서는 엄두내지 못하던 금지된 영역을 탐색하여 자기서사를 능동적으로 만드는 단계<sup>20)</sup>

위와 같은 단계를 외모지상주의와 연관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뒷받침되고 다양한 임상실험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양한 사례와 연구가 축척되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서는 작품서사를 진단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예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문학치료방법론에서 이론 괄목한 만한 연구성과에 기대어 보면, 외모지상주의는 연극성 성격장애에 가깝고 이와 연관된 작품서사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연극성 성격장애는 힘겨운 노력을 통한 능력의 발휘로 인하여 인정받기보다 외모, 성적표현, 지나치게 인상적인 언어표현, 연극적인 행동 방식 등의 순간적으로 취는 방식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경우와 다르다.<sup>21)</sup> 연극성서사는 자기서사적인 이야기로 이를 강박서사가 중화시키는 순기능을 담당할 가능성도<sup>22)</sup> 연구된 바가 있어, 또다른 연구의 실마리도 던져준다. 연극성 성격 장애는 다음과 같은 진단 기준을 가진다.<sup>23)</sup> 광범위하고 지나친 감정 표현 및 관심끌기 행동 양상이 성인기 초기에 시작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나며, 다음의 5개(또는 그 이상) 항목을 충족시킨다. (1)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편해한다. (2) 다른 사람과의 행동에서 흔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성적으로 유

20)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21) 강미정, 「연극성 성격장애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과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1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171면.

22) 강미정, 「연극성 성격장애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과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1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참조.

강박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외모지상주의와 관련하여 다룰 수 있는 내용이 ‘경직성과 완고함’ 정도이다. 그러나 연극성 성격장애는 포괄적으로 외모지상주의와 연관이 있다.

23) 연극성 자기서사 검사와 관련된 진단문항은 정운채 외, 『자기서사검사와 심리검사의 호환성』, 문학과치료, 2011. 참조.

혹적이거나 도발적인 행동이 특징적이다. (3)빠른 감정의 변화와 감정 표현의 천박성(감정표현이 얕음)을 보인다. (4)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항상 육체적 외모를 사용한다. (5)지나치게 인상적으로 말하면서도 내용은 없는 대화양식을 갖고 있다. (6) 자기 연극화, 연극조, 과장된 감정 표현을 나타낸다. (7)피암시성이 높다 (8) 대인관계를 실제로보다 더 친밀한 것으로 생각한다.<sup>24)</sup> 이 중 외모지상주의의 문제는 (1) (2) (4) (6) (7) 항목이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연극성 성격 장애 외에도 편집<sup>25)</sup>이나 강박 등의 요소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이상심리 혹은 강박이나 편집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외모 관련 서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이상심리 진단을 위해 개발된 작품 서사 중 외모지상주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사를 추출하여 활용해보도록 한다. 이 진단은 서사의 다기성을 활용하여 서사의 분기점이 될 항목에서 어떠한 서사로 진입하는지를 보고, 내담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여러 문항 중 대표적인 것을 선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26)</sup>

24) 정운채 외, 『문학치료를 위한 성격장애 서사지도』,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2014, 283면.

25) 편집성 성격 장애 중 외모지상주의와 연관되는 것은 ‘피해의식’이다. 외모로 인해 과거에 경험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부당한 의도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정운채 외, 『자기서사검사와 심리검사의 호환성』, 문학과치료, 2011, 13면 참조.

26) 본 자기서사진단검사 예시문은 『자기서사검사와 심리검사의 호환성』(정운채 외, 문학과치료, 2011)에 제시된 내용으로 편집성 서사와 연극성 서사 검사를 위해 추출된 항목 중 대표적인 외모 관련 내용을 뽑은 것이다. 이들은 편집성이나 연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사이며, 특히 외모에 관한 자기서사를 탐색할 수 있는 서사로 판단된다.



예시문 1 27) : 어떤 남자가 말을 타고 고개를 넘어가는데 예쁜 여자가 말이 아파 걸을 수 없다며 말에 함께 태워달라고 부탁하였다. 남자가 여자를 말에 태운 다음 떨어지면 안 된다면서 자기 등에 여자를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마을에 들어서자 동네 개들이 짖어대면서 난리를 쳤다. 그러자 여자는 말을 오래 타고 왔다고 내리겠다고 했다.

Q. 남자를 중심으로 만들고 싶은 뒷이야기를 고르시오

① 남자는 개를 진정시킨 뒤 여자에게 오갈 데가 없으면 자기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여자가 자신은 본래 어느 부잣집의 과부라고 하면서, 시아버지가 재물을 주며 가장 먼저 만나는 남자를 배필로 삼아 살라고 하여 집을 나온 것이라고 했다. 가난했던 남자는 여자의 재물로 살림을 장만하여 여자와 행복하게 살았다.

② 남자는 여자를 수상하게 여겨 한사코 내리겠다는 여자를 집까지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여자를 개들에게 던져 버렸다. 개들이 달려들어 물어뜯자 여자는 꼬리 아홉 달린 여우로 변하여 죽어버렸다.

③ 앞의 두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아래에 원하는 이야기를 써보세요)

남자는 예쁜 여자를 말에 태우고 마을로 들어섰다. 여자가 말에서 내리고 싶다고 했을 때 분기점은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다. 우선 여자의 외모를 긍정하고 아름다운 여자와 인연을 맺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서사와 여자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의심하여 여자가 여우인 것을 밝혀내는 서사가 그것이다. 이들은 여성의 외모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서로 다른 결말을 도출해내고 있다. ①번의 서사를 선택한 경우는 예쁜 외모와 행복이 결부되어 있다는 외모지상적 성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고, ②번 서사의 경우는 외모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성격을 통해 위기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27) 정운채 외, 『자기서사검사와 심리검사의 호환성』, 문학과치료, 2011, 584면.

예시문 2 : 옛날에 어떤 시골 남자가 벼슬을 얻으려고 서울에 사는 한 대감을 찾아갔다. 남자는 가져온 돈을 모두 썼지만 벼슬을 얻지 못하였다.

Q. 남자를 중심으로 만들고 싶은 뒷이야기를 고르시오

①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주막에서 혼자 사는 주모와 마음이 통하여 둘이 대감을 골려주기로 하였다. 남자와 주모는 부부 행세를 하면서 서울에 사는 대감을 다시 찾아갔다. 대감은 주모의 미모에 반해서 두 사람에게 거처를 주고 남자에게는 돈을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했다. 남자가 집을 비우자 대감이 찾아와서 주모를 희롱하려고 했다. 그 때 밖에서 숨어있던 남자가 갑자기 인기척을 내며 집으로 들어왔는데 주모는 대감을 껴 안에 숨겼다. 남자가 들어와서는 점쟁이가 집에 있는 껴에 귀신이 붙었다고 했으며 껴를 강에 버리려고 했다. 대감이 안에서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남자는 재산의 반과 벼슬을 준다는 약속을 받은 뒤에 대감을 풀어주었다. 후에 남자는 재산과 벼슬을 얻어 주모와 함께 잘살았다.

② 남자는 단념하고 고향에 돌아가다가 한 주막에 머물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남자의 방 앞에서 떨고 있는 한 거지를 발견하였다. 남자는 자기 방에서 자라고 거지를 끌어당겼는데 손이 가슴에 닿아 여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혼자 지냈던 남자는 마음이 동해서 거지 여자와 동침을 했다. 아침이 되자 남자는 남아있던 돈 닢 낭을 모두 주며 옷이나 해 입으라고 하고는 하동에 사는 권선달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시간이 지나 남자의 아이를 낳은 거지 여자는 남자가 준 돈 닢 낭을 주막에서 노름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면서 돈을 불리게 되었다. 몇 년 후 부자가 된 거지 여자는 가난하게 살고 있던 권선달을 찾아와 아들을 인사시키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잘 살았다.

③ 앞의 두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아래에 원하는 이야기를 써보세요)

위 이야기에서 남자는 벼슬과 돈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여성을 만나면서 서사의 분기점이 생긴다. ①에서는 미모의 여성을 수단으로 하여 벼슬과 돈을 얻지만 ②에서는 거지여성과의 동침하여 나중에 결국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앞의 이야기에서는 한 남자가 벼슬과 재산을 얻는 과정에서 미모를 이용하였다는 것이고, 뒤의 이야기는 거지 여성에 대한 동정심과 배려가 있었던 남자가 뜻밖에 그 인연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서사의 경우, 남자는 여성

과 함께 대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외모는 물론 사기와 술수를 이용한다. 여기서 외모는 대감에게 벼슬과 재산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이며, 외모가 있으면 이러한 사기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외모를 수단으로 생각하며 물질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뒤의 서사는 거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적 성욕의 해소 후에는 여자를 배려하며, 하등의 권선달임을 밝혀 재회의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적 편견을 벗어나는 서사라고 하겠다.

예시문 3 <sup>28)</sup> : 옛날에 어떤 아내가 새참을 이고 밭으로 나갔다. 그런데 남편이 웬 예쁜 여자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이었다.

Q. 아내를 중심으로 만들고 싶은 뒷이야기를 고르시오

① 아내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와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다. 남자는 아내를 달래며 아까 밭에서 본 여자는 집안에서 키우던 개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산에서 주어 온 해골바가지를 씹으면 개도 미녀가 되고 소도 미녀가 된다고 알려 주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마음을 풀고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주막에서 예쁜 여자를 구한다고 하니 개에게 해골바가지를 씹워 돈을 벌해보자고 했다. 부부는 개를 미녀로 만들어 주막에 팔아 돈을 벌었다.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미녀로 변해 팔려갔던 개가 주막에서 도망쳐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② 아내는 이고 가던 새참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남편이 타지에 있는 동안 고되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남편만을 기다렸던 자기 신세가 한심해졌다. 상심한 아내는 아홉 가지 약을 먹고 비단을 풀어 목을 매어 죽었다. 기생을 끼고 놀던 남편이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와서 화류계 여자에 대한 사랑은 삼년이고, 본부인에 대한 사랑은 백 년이라며 안타까워하였다.

③ 앞의 두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아래에 원하는 이야기를 써보세요)

위의 이야기는 아내가 미모의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본 반응이 갈리는 경우이다. ①의 이야기에서는 그 미모를 수단으로 하여 남편과 아내가 돈을

28) 정운채 외, 『자기서사검사와 심리검사의 호환성』, 문학과치료, 2011, 626면.

낸다. 개를 미녀로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파는 것이다. 해골바가지를 뒤집어쓰면 미녀가 된다는 것은 미모가 곧 껍데기일 뿐이며, 해골바가지가 곧 미인이 되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외모에 대한 문제인식을 드러내준다. 그 미모를 팔아 돈을 버는 행위는 외모를 상품가치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곧 이 서사를 선택한 내담자는 외모가 해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모를 이용해 목적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외모지상주의에 가까운 가치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②의 이야기는 남편의 바람을 목격한 아내가 상심하여 죽음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예쁜 여성과 함께 있는 남편을 통해 상심한 결과 아내는 외모로 여성을 파악하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죽게 되지만 남편은 뒤늦게 자신의 행실을 반성한다. 남편은 예쁜 기생과 놀기는 하였지만 아내가 죽은 후 본부인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 아내는 집에서 시집살이를 하며 타지에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고, 남편이 돌아오자 한결음에 달려갔던 것이다. 아내는 기생보다 예쁘지 않지만 남편을 위해 깊은 사랑을 드러낸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예시문 4 29) : 어떤 남자가 길을 가는데 한 어여쁜 여자가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그 여자에게 반하여 날이 저물어 갈 곳이 없다며 묵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여자는 남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

Q. 여자를 중심으로 만들고 싶은 뒷이야기를 고르시오.

① 여자는 남자를 위해 밥을 차려주고 편히 쉬게 했다. 남자가 쉬면서 여자를 보았더니 바느질을 하면서 실을 끊으려고 혀를 날름거리는데 혀바닥이 두 갈래였다. 그것을 본 남자는 아까 낮에 길에서 새끼 학을 잡아먹으려던 구렁이를 활로 쏘아 죽인 일이 생각나면서 웬지 꺼림칙하였다. 그래서 소변을 보러 나가겠다고 하자 여자가 방에서 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여자는 자신이 낮에 죽은 구렁이의 아내라고 말했다. 남자가 체발 살려 달라고 하자 여자는 뒷산 절에서 쇠북 소리가 세 번 울리면 살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밤이 되자 절에서 쇠북 소리가 세 번 났다. 여자는 남자에게 당신은 하늘이 낸 사람이니 내가 죽일 수 없다면서 사라졌다. 나중에 남자가 절에 가서 보았더니 학 세 마리가 쇠북 아래 떨어져 죽어 있었다.

② 여자는 자기 남편은 멀리서 장사를 하느라 집에 자주 안온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여자와 정을 통했다. 그렇게 일주일 쯤 지낸 남자는 그 여자의 집을 떠나 서울로 가다가 어느 여관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여관 주인은 손님들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였다. 남자는 어느 마을에서 어여쁜 여자와 일주일 동안 즐긴 이야기를 했다. 여관 주인이 듣자하니 남자가 말하는 여자가 따로 사는 자기 후처 이야기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 여관 주인이 후처를 불러 놓고 남자에게 다시 이야기를 시켰다. 남자가 눈치를 채고 어제 이야기는 다 꿈이라고 말했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자기를 의심하는 남편은 싫다며 남자를 따라가 부부가 되어 살았다.

③ 앞의 두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아래에 원하는 이야기를 써보세요)

예쁜 여자는 미모를 이용해 남자와 정을 통하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의 이야기는 정체가 뱀인 여자가 미모로 원수를 갚으려 했지만 지혜로운 남자는 이를 눈치채고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뒤의 이야기는 후처로 있는 여성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 미모를 이용해 정을 통했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 새 남자를 따라 부부가 되어 살았다는 것이다. 외모의 아름다움을 이용해 남자를 얻으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앞의 이야기는 실패가, 뒤의 이야기는 성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예시문 5 30) : 옛날에 한 여자가 구렁이를 낳았다. 구렁이는 어머니에게 이웃의 부잣집에 장가를 보내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어머니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부잣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의 셋째 딸이 자처하여 구렁이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했다. 구렁이는 첫날밤에 허물을 벗고 미남자가 되었다. 남자는 셋째 딸에게 자신의 허물을 아무에게도 보여줘서는 안된다고 신신당부하고 과거를 보러 떠났다. 그런데 셋째 딸을 질투한 언니들이 구렁이 허물을 찾아내 불에 태워버렸다. 남자는 과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허물이 타는 냄새를 맡았다.

Q. 남자를 중심으로 만들고 싶은 뒷이야기를 고르시오

① 남자는 셋째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남자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언니들은 셋째 딸을 피어내어 물에 빠뜨리고 그 중 한 명이 셋째 딸인 척하였다. 그리고 돌아온 남자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남자는 셋째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부로 살았다. 하루는 옆집 할머니가 남자를 불러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였다. 밥상을 받은 남자는 젓가락의 짝이 맞지 않는 것을 보고 젓가락이 짝짝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셋째 딸이 나타나 젓가락이 짝짝이라는 것은 알아보면서 자기 아내는 왜 못 알아보느냐며 그 동안의 일을 말했다. 남자는 언니들을 죽이고 셋째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② 남자는 셋째 딸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 버렸다. 셋째 딸은 남자가 돌아오지 않자 직접 찾아 나섰다. 셋째 딸은 남자의 소식을 수소문하여 어렵게 남자를 찾아갔다. 남자는 이미 또 다른 여자와 혼인하여 살고 있었는데 자신을 찾아온 셋째 딸과 새로 혼인한 여자 가운데 배필을 가리기 위한 시험을 하도록 했다. 셋째 딸은 겨울날 미끄러운 길에서 물을 흘리지 않고 걸어오는 시험과 호랑이 눈썹을 구해오는 시험에서 최선을 다해 여자를 이겼다. 남자는 셋째 딸을 배필로 인정하고 함께 살았다.

③ 앞의 두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아래에 원하는 이야기를 써보세요)

구렁이로 태어난 남자는 허물을 벗은 이후 셋째 딸에게 지켜야 할 금기사항을 일렀다. 셋째딸이 금기를 어기자 남자의 행동은 분기점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①의 이야기는 셋째딸을 걱정하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

30) 정운채 외, 『자기서사검사와 심리검사의 호환성』, 문학과치료, 2011, 634면.

신의 아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속는 모습을 보여준다. ②의 이야기는 약속을 어긴 셋째딸에게 자신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하고 이를 통과한 셋째딸과 다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남자는 자신의 외모와 상관없이 진심으로 자신을 찾아온 아내를 인정하고 다시 맞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딸은 본래 구렁이였던 남자의 외모에 편견을 가지지 않고 결혼하였는데, 남자가 미남으로 거듭난 후 금기사황을 어기면서 불행의 길로 빠진다. 이는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구렁이로서의 외모시험에 이은 두 번째 외모시험인 셈이다. 이번에는 구렁이였던 과거와 달리 미남 남편에 대한 과시나 우월이 없는지가 요건이다. 그런데 셋째딸은 어찌되었건 자신의 언니들에게 비밀을 누설하여 구렁이 남편이 사실은 미남이었음을 알린다. 이는 외모에 대한 과시이며, 또다른 의미에서 보면 언니들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①에서의 남자는 집에 돌아와서도 자기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바보처럼 살아간다. 남자는 옆집 할머니가 꾸짖은 뒤에야 겨우 아내를 알아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결국 외모를 과시하고 싶었던 셋째딸의 입장에서 보면 정작 중요한 남자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언니에게 사랑을 빼앗긴 것이다. 이 서사는 외모 때문에 낭패를 겪거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심리를 투영한 것으로 외모지상주의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②에서 셋째딸은 외모 과시로 인해 벌어진 이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다시 금 남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키워 보여준다. 남자의 외모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여성적 능력과 담력이 그 시험 대상이다. 따라서 이 서사는 외모를 뛰어넘어 자신의 힘을 키우고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서사진단 문항은 다양한 설화의 해석과 분기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 외모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준다. 내담자는 이러한 작품서사를 읽고 자기서사에 대입시켜봄으로써 자신의 외모에 관한 성향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치료사는 작품의 정확한 해석보다 내담자

에게 전개되는 서사적 관련성을 주목하고 인정해야하며, 따라서 작품의 해석 못지않게 다양한 해석 가능성과 창작의 힘을 주목<sup>31)</sup>하여 진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는 작품 중심적 관점에서 인간 중심적 관점으로의 이동을 뜻하며 제시된 작품서사를 실마리로 하여 내담자의 자기서사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유도하고 관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서사진단도구는 ①자기서사의 전모 파악 ②자기서사진담검사에 필요한 척도 마련 ③효율적인 자기서사진담검사도구의 형식 개발 ④임상실험을 통한 검증과 보완과정이 필요<sup>32)</sup>한데 다각도의 임상실험이 동반되어야 진단도구로서의 효용이 검증되고 보완될 것이다.

## 5. 개선을 위한 작품서사

진단문항과 자기서사의 표현에 따라 외모지상주의적 성향과 심리가 파악되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서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개선을 위한 작품서사라는 점에서 제공되는 서사와 자기 서사가 함께 아우러져 외모지상주의적 성격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가져야 한다. 병적 증상의 완화와 개선을 위해서 문학치료사는 작품을 중심에 둔 상담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되는 서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작품서사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서사는 『문학치료를 위한 정동장애 및 신체화장애 서사지도』, 『문학치료를 위한 성격장애 서사지도』에 나타난 개선서사의 내용 중, 위에서 다룬 진단서사와 연관되면서 관계의 회복과 문제의 해결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선서사는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하며, 문제상황에 닥쳤을 때 긍정적인 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31)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실천』, 문학과치료, 2015, 151면.

32)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실천』, 문학과치료, 2015, 152면.



우선 개선서사로 <젊어지는 샘물><sup>33)</sup>을 제안한다.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샘물을 발견하고 물을 마셨는데 세 번쯤 마시니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사실을 말하고 샘물을 먹게 해서 젊은 새댁이 되었다. 옆집의 욕심많은 노인이 와서 젊어진 이유를 묻자 웅달샘의 위치를 알려주었는데, 욕심많은 노인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만 아기가 되고 말았다. 내외는 그 아기를 데려다가 행복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는 젊음에 대한 소망을 채우게 된 것으로 지나치게 젊음을 갈구하다가는 불행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다음 개선서사로 <도술 뛰어난 박색 황부인><sup>34)</sup>을 제안한다. 황부인의 남편은 첫날 밤 황부인의 못생긴 얼굴을 보고 도망친다. 그러나 황부인이 도술을 써서 남자가 아무리 도망을 쳐도 황부인 집을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남자는 각시방에 들어가 옷을 얻어입고 먹을 것을 얻어먹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부인의 솜씨가 좋다고 생각했다. 남자가 다시 도망을 쳤으나 황부인 집만 나오자 결국 다시 방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황부인이 예쁘게 변해서 앉아있었다. 황부인은 그동안 탈을 쓰고 있었다고 하며 용서를 구했고, 친정에 편지를 띄워 재물을 얻어 남자와 함께 잘 살았다.<sup>35)</sup>

황부인은 자신의 용모가 박색이었지만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남편의 무시와 냉대에도 의연하게 대처하였고, 탈각을 한 연후에 재물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었다. 곧 외모보다는 능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함을 깨우칠 수 있다.

또다른 개선서사로 <박색 모함 벗은 신부>를 제안한다. 한 남자가 장가는 날 대례청에 서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다가오더니 신부가 원두꺼비

33) 정운채 외, 『문학치료를 위한 정동장에 및 신체화장에 서사지도』,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2014, 165면. 이 작품은 경조서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으나 신체의 젊음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외모관련 서사로 이용할 수 있다.

34) 정운채 외, 『문학치료를 위한 정동장에 및 신체화장에 서사지도』,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2014, 62면. 이 작품은 우울서사 개선을 위한 자료로 소개되었지만 외모에 대한 수치심을 극복하고 씩씩하게 자신의 애정을 성취한 이야기로 해석이 가능하다.

35) 정운채 외, 『문학치료서사사전』 1, 문학과치료, 2009, 770면.

같이 못생겼다고 말했다. 사실 신부는 아주 예쁜 사람이었는데 마을의 인심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동네 할머니가 험담을 한 것이었다. 신랑은 장가를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여 신방에 들어가서도 병풍 너머에 있는 신부를 보려하지 않고 한숨만 쉬고 있었다. 그러나 신부는 사람이 남의 말만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졌다. 신랑이 그 말을 듣고 보니 신부가 무식한 것은 아니어서 병풍을 걷었는데 신부가 아주 예쁜 것이었다. 그리하여 둘은 잘 살았다.<sup>36)</sup>

신랑은 첫날밤에 동네 할머니의 모함하는 소리만 듣고 신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신부는 좌절하지 않고 신랑을 꾸짖어 진실을 알도록 하였다. 박색이라는 말만 믿고 신부를 보지 않은 신랑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결백을 밝힌 신부의 당당함 때문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외모로 인해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으려 하는 남자를 개선시키는 신부의 주체성을 부각하고 있다.<sup>37)</sup> 곧 외모를 통해 평가를 하는 부당함을 알리며, 관

36) 정운채 외, 『문학치료서사사전』 1, 문학과치료, 2009, 1122면.

37) 박색 여성의 주체적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문둥이 처녀와 동침한 총각>도 역시 개선 서사에 활용될 수 있다.

<문둥이 처녀와 동침한 총각>

① 옛날에 조실부모한 총각이 있었다.

② 총각이 길을 나섰는데 삼일을 들어가자 무인지경에 가랑잎이 사람머리까지 빠질 만큼 쌓여 있었다. 총각이 가랑잎에 빠져 목만 내놓고 하루밤을 자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 산 건너에 불이 보였다.

③ 총각이 찾아 올라갔는데 단간 초옥에 무척 아름다운 색시가 앉아 있었다.

④ 총각은 들어가서 자고가기를 청했는데 여인이 반갑게 맞았다.

⑤ 총각은 색시의 얼굴이 기가 막혀 동품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 문둥이었다.

⑥ 아침이 되어 이 모습을 본 총각이 달아나려 하자 색시가 보파리를 붙들었다. 총각은 보파리를 내버리고 달아났다.

⑦ 그 보파리 속에는 총각이 산에 올라오는 길에 따온 복숭아 세 개가 상옷과 함께 들어있었다. 색시가 보파리를 풀어보니 성명이 적힌 옷과 복숭아가 있어 그것을 먹었다. 복숭아는 천도복숭아인데 색시가 그것을 먹은 뒤 몸에서 벌레가 쏟아져 나와 색시의 병이 낫게 되었다.

⑧ 색시는 사실 임금의 딸로 나병이 들어 산골에 투막을 짓고 투병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라에서는 공주의 차도를 확인해 왔는데, 다 나온 공주를 발견하고는 궁으로 데리고 갔다.

계에서 진실성을 요구하여 부부간 문제를 극복하고 잘살게 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갈등을 조화롭게 마무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세 개의 개선서사는 내담자의 자기서사에 따라 단계별 개선서사로 쓰일 수도 있다. 또 증상에 따라 필요한 서사가 적절히 선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sup>38)</sup> 외모관련 개선서사를 좀더 다양하게 발굴하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따라 서사가 진행이 된다면 나아가 서사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선서사를 활용함으로써 외모의 편견에서 벗어남은 물론, 다양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심미안을 회복하고, 자기 외모에 대한 존중감을 높여 외모강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개선서사만으로 외모지상주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선서사는 자신이 겪고 있는 병적 증상에 대한 심리적 전환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를 문학치료사는 상담과정에서 유도함으로써 강박, 편집, 과시욕, 신경증 등의 여러 증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투입

⑨ 공주가 병이 낫게 된 사연을 말해서 옷에 적힌 성명의 주인공을 찾게 되었다.

⑩ 총각은 영문도 모르고 붙잡혀 가게 되었는데 가서 임금의 부마가 되어 시위노릇을 하며 살았다.

김정애, 「이어쓰기 활동을 통해본 <문둥이 처녀와 동침한 총각>의 문학치료적 활용 가능성」, 『문학치료연구』 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229~230면. 비슷한 유형으로 <선비와 나병처녀> <거지 여자와 동침하고 벼슬 얻은 남자>가 있다.

38) 2016년 6월, 150명의 남녀 대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진단문항과 개선서사를 샘플로 제시하여 자신의 생각을 쓰도록 하였다. 개선서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의견은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지면한계상 몇가지만 제시한다.

<젊어지는 샘물>

-젊음에 대해 폭속 거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결국 사람은 늙고 죽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면 안된다.

-젊으면 젊은대로, 늙으면 늙은대로 그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다. 젊어지려고 요즘의 료시술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보다는 자연스런 미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남성이나 여성, 어른, 아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젊음에 대하여 계속 갈망한다. 그로 인하여 욕심이 과하다보면 강남역에 가면 성형미인이 판을 치듯, 자연스러운 '미'보다는 인공적인 '미'가 중시되는 사회가 올 수 있다. 아름다움은 보기좋지만 이것이 욕심과 만나면, 다시는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 같다.

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서사가 지속적으로 더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 6. 맺음말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병리적 현상을 겪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를 문학치료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가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며, 능력보다 외모가 성공을 좌우한다고 인식하게 될 때, 사회적 평가에 노출된 자신의 외모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sup>39)</sup>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우리의 인식을 주체적 시각 우위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문학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성찰하는 일은 근본적인 치료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문학치료가 이미 만연된 외모지상주의를 되돌려 놓는 일에 쓰이기보다는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자료로 쓰여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외모는 대상을 처음으로 지각하게 하는 역동적 존재로서, 다양한 미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점을 지각할 때 인간다움, 인문학적 세계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대상을 획일화, 균질화된 어떤 기준이 아니라 감성적 인식을 통해 ‘전체적’으로 보는 감성적 인식도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sup>40)</sup> 그러한 면에서 문학치료방법론이 사회에 기여하는 통로가

39) 임인숙, 「외모차별 사회의 외모불안감과 노화불안감」, 『한국사회학』 49-4, 한국사회학회, 2015, 220~221면.

40) 미적 지각은 선이나 색깔 그리고 형태나 소리 등에 내재한 비례와 조화에서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능력을 말하지만, 감성적 지각은 ‘전체’라는 지평에서 직접적이고 분산되어 있는 지각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감성적 인식은 심미적 지각을 넘어 평가적 감정까지 함축한다. 한편, 자기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타자에 대한 배려, 심미적이면서도 동시에 타자의 고통에 예민하게 감응할 수 있는 미-윤리적 감수성, 이러한 능력이 온전하게 갖추어진 감성적 인간이야말로 사물화와 균질화로 무감각해져가는 이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환, 「자본주의 신체미학과 자아정체성: ‘미적 실존’에서 ‘감성적 실존’으로」, 『철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모지상주의를 진단할 수 있는 서사진단문항을 추출하여 제시하였으며, 진단 후 개선과 치료를 위한 서사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서사자료를 치료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치료사의 해석과 내담자와의 공감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외모지상주의의 작품서사는 기존의 문학치료적 업적을 활용한 것으로, 외모지상주의의 진단과 개선에 맞게 다시 구성, 활용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러한 작품서사가 문학치료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임상실험의 과정과 방법이 고안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모지상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문학적으로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시론적인 성격에 머무는 것임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구체적인 성과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문학치료의 단계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외모로 인한 절대적인 평가가 무의미하다는 것, 다양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심미안이 내면에 있다는 것, 자신 혹은 타인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자신의 외모관이 사회적 구성 하에서 각인된 타율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다. 문학치료는 결국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드러냄으로써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을 본질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기본자료

정운채 외, 『문학치료서사사전』 1,2,3, 문학과치료, 2009.

### □ 논문 및 단행본

강미정, 「연극성 성격장애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과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1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강미정, 「연극성 성향이 있는 대학생을 위한 강박서사의 순기능」, 『문학치료연구』 21,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고석주·정진경, 「외모와 억압·문화적 관념의 내면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학』 8, 한국여성학회, 1992.

권수현·이정화·이준원, 「외모가꾸기」에 대한 여성학적 분석」, 『연구논총』 30,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96.

김정애, 「이어쓰기 활동을 통해본 <문둥이 처녀와 동침한 총각>의 문학치료적 활용 가능성」, 『문학치료연구』 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로우드, 권기대 역, 『아름다움이란 이름의 편견: 인간의 외모를 바라보는 방식을 리디자인하다』, 베가북스, 2011.

박영례·손연정, 「성인여성의 생애주기별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 스트레스 및 건강 관련 삶의 질 간의 관계」, 『기본간호학회지』 16-3, 기본간호학회지, 2009

쉴링, 임인숙 역, 『몸의 사회학』, 나남, 2011.

이승환, 「자본주의 신체미학과 자아정체성: ‘미적 실존’에서 ‘감성적 실존’으로」, 『철학연구』 36,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8.

임인숙, 「외모차별 사회의 외모불안감과 노화불안감」, 『한국사회학』 49-4, 한국사회학회, 2015.

- 정운채 외, 『자기서사검사와 심리검사의 호환성』, 문학과치료, 2011.
- 정운채 외, 『문학치료를 위한 성격장애 서사지도』,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2014.
- 정운채 외, 『문학치료를 위한 정동장애 및 신체화장애 서사지도』,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2014.
-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 정운채, 「연극성 성격장애의 심층적 원인으로서의 연극성서사」,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과치료, 2015.
- 정운채,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문학과치료, 2006.
-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실천』, 문학과치료, 2015.
- 최혜진, 「이춘풍전에 나타난 부부갈등의 해결 방식과 문학치료적 효용」, 『한국언어문학』 63, 한국언어문학회, 2007.
- 최혜진, 「<심청전>의 문학치료적 접근」, 『문학치료연구』 4, 한국문학치료학회, 2006.
- 카렌 호나이, 서상복 역, 『내가 나를 치유한다』, 연암서가, 2015.
- 카렌 호나이, 정명진 역, 『나는 내가 분석한다』, 부글, 2015.
- 홍성민, 「질주하는 몸의 욕망과 자아의 재귀」, 『철학연구』 44,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1.

국문초록

외모지상주의의 문학적 극복과 치료적 대안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인문학적 해결방안—

최혜진

본 연구는 외모지상주의가 조장하는 여러 사회적 병리 현상들을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학치료적 대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사회는 이미지 소비를 통해 몸(외모)이 욕망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상품화가 이루어지면서 외모지상주의가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은 외모를 가치나 평가의 척도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차별을 발생시키며 이는 외모불안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모지상주의가 가져 오는 여러 폐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방법론으로 자기서사의 진단과 개선을 위한 문학치료의 방법이 유효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개선서사를 활용함으로써 외모의 편견에서 벗어남은 물론, 다양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심미안을 회복하고 자기 외모에 대한 존중감을 높여 외모강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미감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미에 대한 획일적인 안목을 떨치고 비대칭적 심미안을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외모지상주의로 파생된 한국적 병리현상이 어떠한지 고찰하였고, 문학치료학적 자기서사 진단을 위해 작품서사를 추출하여 제시하고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모지상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한 개선서사를 제안하여 건강한 자기서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인문학적 해결로써 문학치료적 방법론을 제안하여, 건강한 자기서사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외모지상주의, 문학치료, 신경증, 성격 장애, 연극성 서사, 자기 서사, 작품서사, 개선서사

Abstract

Literary Restoration and Therapeutic Alternatives to Lookism  
—Humanistic Solutions for Social Problems due to Lookism—

Choi, Hye-Jin

This study focuses on several pathological social phenomena encouraged by lookism and provides literary therapeutic alternatives to solve them. As bodies become desire through image consumption and are commercialized for in various ways in modern society, lookism has gradually led to social problems. Members of society cause new discrimination by utilizing appearance as their scale of value and their evaluation of people it appears to a fear of one's appearance.

The study suggests a literary method of therapy for diagnosing and improving one's self epic that is an effective methodology for solving several harmful effects brought about by lookism. The study was conducted to make people escape from prejudice regarding appearance, restore eyes for beauty so that they can recognize a variety of forms of beauty, and escape from obsessions with their appearance by improving their self-esteem through utilization of a suggested improvement epic. The emphasis was on trying to obtain a variety of perceptions and standards of beauty as the important process, so that people became willing to change uniform eyes and restore asymmetric ones.

For this, Korean pathological phenomena derived from lookism were first studied, and work epics were extracted, presented, and analyzed to diagnose literary therapeutic self epics. Finally, improvement epics were

suggested to induce people to break away from lookism change to a healthy self epic.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leads people to adopt a healthy self epic, by suggesting a literary therapeutic methodology to solve lookism in a humanistic way.

Key-Words : Lookism, Literary Therapy, Nervous Diseases, Personality Disorders, Histrionic Epic, Self Epic, Work Epic, Improvement Epic